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NYT: 양호한 경제 상황이 바이든 지지로 이어지지 않아
- Bloomberg: 새로운 조사 결과, 미 인플레이 급등 원인 설명
- Bloomberg: 미국인들, 각종 부채 이자가 모기지 만큼 부담 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비자와 웨스턴 유니온, 40개국 이상에 파트너십 확대
- CNN Business: 신용카드 연체로 8불로 제한... 정크 수수료 단속 일환으로
- WSJ: 미국인들, 더 좋은 금리와 낮은 수수료로 작은 지역 은행으로 전환

[미국 생활]

- Bloomberg: 미국 도시들, 일일 최고 기온 기록
- Bloomberg: 등록율 줄어 미 작은 대학들 어려움 겪어

[미중 경제]

- Bloomberg: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중국은 국가력 동원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24% 급감 ... Huawei 스마트 폰 사업 재기 때문
- Bloomberg: 아마존의 휴머노이드 로봇, 자동화된 업무 환경으로 바꾼다
- WSJ: Target,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감소

[하바드 비즈니스 리뷰 보고서]

- 회사에 변화를 실현하는 방법

[보고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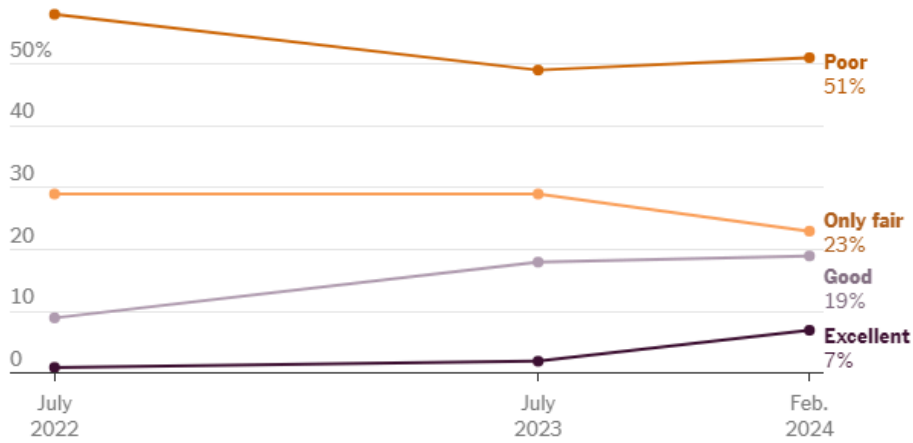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NYT: Brighter Economic Mood Isn't Translating Into Support for Biden 양호한 경제 상황이 바이든 지지로 이어지지 않아

- 미 대선을 8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미 유권자들은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노동 시장이 안정되어, 경제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.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상황 속에도 지지도 면에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.
-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컬리지 공동 여론 조사 결과, 유권자 26%가 미국 경제가 좋거나 아주 좋다고 답했다. 이는 지난 7월 보다 6%p나 상승한 수치다.
-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지지도는 7월의 39%에서 36%로 감소했다.

Thinking about the nation's economy, how would you rate economic conditions today?



Note: Does not include those who responded "don't know" or who refused to respond. • Source: New York Times/Siena College polls of registered voters in July 2022, July 2023 and February 2024 • By Christine Zhang

By Ben Casselman and Lydia DePillis Graphics by Christine Zhang

March 5, 2024, 5:36 a.m. ET

NYT 기사

Bloomberg: New Research Tries to Explain Root Cause of US Inflation Surge

새로운 조사 결과, 미 인플레이 급등 원인 설명

-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, 팬데믹 초기 2년 동안 미 수입 비용이 급등한 이유는 미 통화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따른 국내 수요 급등 탓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쇼크 때문이다.
- 이같은 결과는 뉴욕연방은행과 UCLA의 '인플레이 유발 요인'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.
- 그동안 경제학자들 간에는 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인한 강한 수요 아니면 공급망 충격이 인플레이의 주요 동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Americans Now Pay as Much Interest on Other Debt as on Mortgag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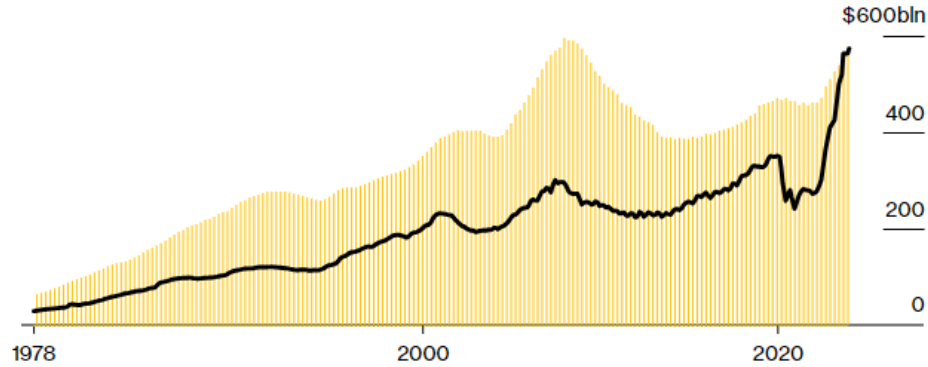
미국인들, 각종 부채 이자가 모기지 만큼 부담 커

- 미국 가구들은 크레딧 카드와 학생 대출 용자 등 여러가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모기지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경제분석국 자료에서 밝혀졌다.
- 올해 1월 비모기지 이자 비용은 연율로 5천7백34억달러로 증가했다. 이는 인플레이 조정후에도 가장 기록적인 수치다. 또한, 이 수치는 작년 4분기에 미 가계가 지출한 모기지 이자 5천7백83억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.

Interest Payments by US Households

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

Non-mortgage Mortgage



Source: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Visa, Western Union Expand Partnership to More Than 40 Countries

비자와 웨스턴 유니온, 40개국 이상에 파트너십 확대

- 비자와 웨스턴 유니온 기업은 국가가 송금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고객들이 송금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숫자를 2배 늘렸다.
- 2031년까지 진행되는 결제 네트워크 대기업과 송금 회사 간의 계약을 통해 40여개국 이상의 고객들은 비자카드와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. 이는 2020년의 20개국에서 2배 늘어난 셈. 비자 책임자들은 지난 1월의 실적 보고에서 이같은 파트너십 확대를 미리 공지했다.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Credit card late fees capped at \$8 as part of Biden crackdown on junk fees

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로 제한... 정크 수수료 단속 일환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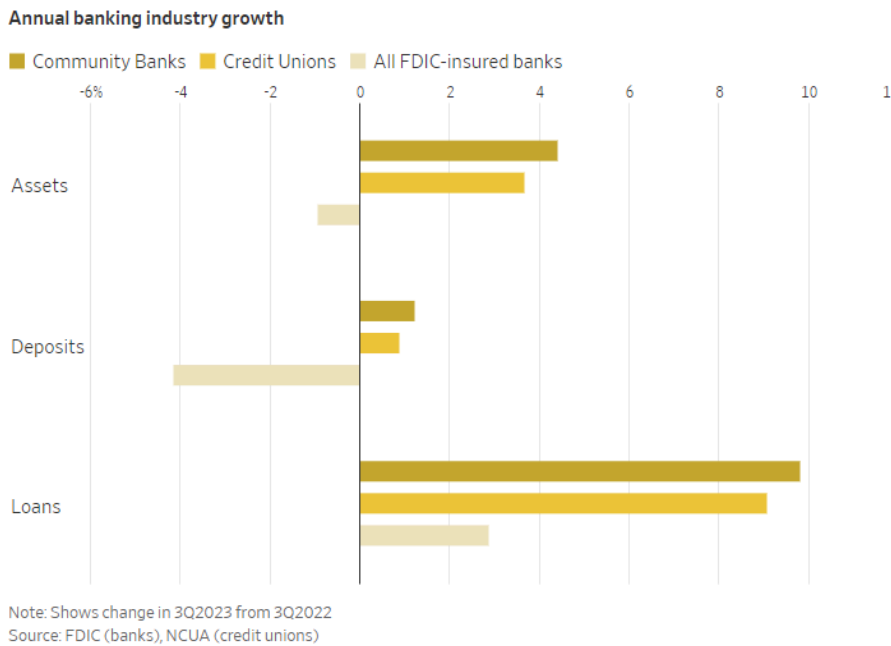
- 연방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크 수수료 단속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룰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.
- 작년 여름 처음으로 제안된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, 해당 조치를 통해 평균 32달러인 연체료를 낮춤으로써 미 가구는 연간 1백억불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.

CNN Business 기사

WSJ: Better Rates, Lower Fees: Some People Are Switching to Small-Town Banks

미국인들, 더 좋은 금리와 낮은 수수료로 작은 지역 은행으로 전환

- 일부 은행 고객들이 소수의 대형은행에 용자와 예금이 집중되는 움직임에 반발해 소규모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다. 이들은 소규모 은행으로 바꿀 경우 은행직원과 대면 시간이 늘고 더 많은 수입과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.
- 그러나 현재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은행은 줄고 있다.
- 올해 대출 기관들이 규모면에서 안정성을 추진하면서 올해 은행 합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
WSJ 기사

[미국 생활]

Bloomberg: US Cities Post New Daily High Temperature Records: Weather Watch

미국 도시들, 일일 최고 기온 기록

- 연방기상청은 미국 중서부 여러 도시에서 월요일에 기록적인 따뜻한 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- 3월 4일, 일리노이주의 Aurora와 Rockford, Milwaukee, Toledo, Ohio 그리고 Detroit 등지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. 따뜻한 날씨는 동쪽의 Buffalo 까지 이어져, 72°F (22°C)의 수치를 기록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Distress Soars at Small US Colleges as Enrollment Declin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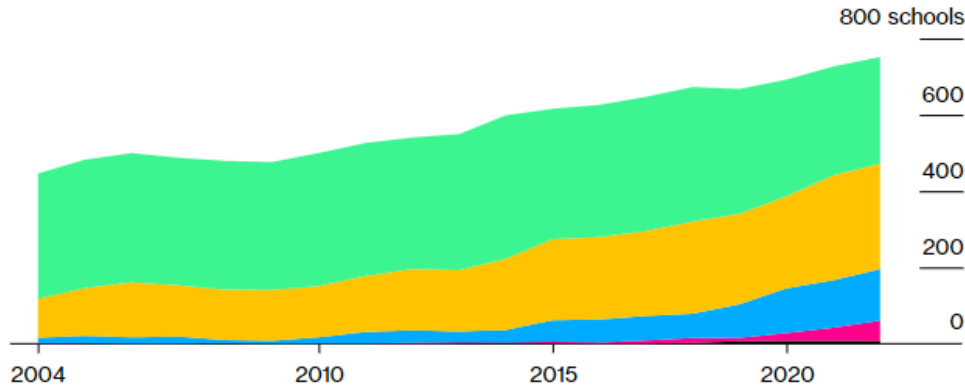
등록율 줄어 미 작은 대학들 어려움 겪어

- 블룸버그의 연방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대학들이 등록율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학생수가 5천명 미만의 학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. 해당 소규모 대학들은 등록률 감소, 수면간의 반복되는 운영 손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이로 인해 폐쇄 또는 합병 계획을 세우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대학이 12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Higher Ed Stress Climbed

Schools meeting stress flags like enrollment declines, operating losses

■ Five Flags ■ Four Flags ■ Three Flags ■ Two Flags ■ One Flag



Source: Bloomberg analysis of small, nonprofit four-year colleges;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ata through 2022-23 collection period

Bloomberg 기사

[미중 경제]

Bloomberg: China to Mobilize Nation as It Fights US for Tech Supremacy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중국은 국가력 동원

- 중국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체 개발 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. 미국으로부터 기술 패권을 빼앗기 위해 AI부터 칩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한 것이다.
- 관련 문서에 따르면, 중국 정부는 2024년에 과학 기술 연구 지출을 10% 늘려 5백15억 달러로 늘리고, 국가 인재 육성 및 기업 주도 발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.
- 시진핑 주석의 집권 아래,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했다. 시 주석 측근들은 기술 발전을 위해 이른바 ‘전 국가적’ 접근 방식을 시작했으며,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막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Apple iPhone sales plunge 24% in China as Huawei smartphone business resurges, report says

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24% 급감 ... Huawei 스마트폰 사업 재기 때문

- 화요일 관련보고서에 따르면, 2024년 첫 6주 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했다.
- 해당 분석 업체는 애플이 Huawei, Oppo, Vivo 그리고 Xiaomi 같은 현지 스마트폰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에, 해당 기간 아이폰 판매량이 24% 감소했다고 밝혔다.
- 애플은 Mate 60 스마트폰 출시 이후 중국에서 소비자 사업이 재기되고 있는 화웨이로부터 특히 압박을 받았다. 여러 경쟁 스마트폰 기업도 6주 동안 판매량이 감소했지만, 그 감소 폭은 애플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Humanoid Robots at Amazon Provide Glimpse of an Automated Workplace

아마존의 휴머노이드 로봇, 자동화된 업무 환경으로 바꾼다

- 최근 시애틀 근처 아마존 창고의 직원들은 새처럼 걷고 빛나는 하얀 눈을 가진, 인간을 닮은 5피트 9인치의 로봇을 통해 미래의 작업 환경을 엿볼 수 있었다.
- Digit이라 불리는 해당 로봇은 선반에서 빈 노란색 쓰레기통을 꺼내 몇 피트 떨어진 컨베이어로 그것들을 옮기는 한 가지 기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다. 로봇은 해당 작업을 반복한다.
- 아직 테스트 단계인 해당 로봇이 당장 물류 산업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. 하지만 중요한 기술적 도약으로서, 제조사 Agility Robotics는 인간과 함께 협력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서게 됐다.
- 강력한 모터와 배터리, 컴퓨터 비전, 인공지능 등의 Digit을 만드는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 붐을 일으켰다.

Bloomberg 기사

WSJ: Target Sales Fall for First Time Since 2016

Target,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감소

- Target의 연간 매출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. 가정용품과 전자제품 등의 품목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.
- 화요일 Target은 2월 3일에 마감된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.6% 감소한 1백74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 회사는 매장 방문 트래픽 감소와 식품 및 기타 필수품에 더 많이 지출하는 쇼핑객의 영향에 맞서 싸우는 중이다.

- Target의 약점은 아마존, 월마트, 코스트코 등 일부 경쟁업체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. 또한 해당 소매업체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에 판매된 특정 제품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객의 분노를 샀고, 이것이 매출에 큰 타격을 주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 보고서]

HBR: How to Actually Execute Change at a Company 회사에서 변화를 실현하는 방법

-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, 실행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. 평균적으로 계획의 60%만 실현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. 다음의 네 요인은 40%의 손실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, 계획의 의도와 실제 효과 간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.
- ACE 방식 활용하여 내용 전달하기: 변경 및 실행을 계획할 때 ACE 방식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. “Actionable: 전달 내용이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는가?”, “Credible: 전달 내용이 결정의 이성적인 근거가 되는가?”, “Emotional: 전달 내용이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있는가?”
- 방법 숙달하기: 스스로 주어진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적용하는데 더 높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 및 도전 과제에 더 잘 대처한다. 따라서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물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 영국의 다국적 소매업체인 Marks & Spenser는 프로젝트 시작 시와 정기적 점검을 통해 위의 관행을 실천하고 있다. 또한, Google, Mastercard, 그리고 Nvidia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에게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구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
- 메커니즘을 통한 증폭: 개선이 목표인 경우 긍정적인 메커니즘이 활용적이지만, 훈육에는 증폭기가 필요하다. 예컨대, 코스트코는 ‘위험 부담 없는 100% 만족 보장’이라는 자유로운 환불 정책을 증폭기로 사용한다. 고객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시켜, 고객 경험을 선도하는 소매업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. 상황에 따라 실행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메커니즘의 유형은 다르지만, 다음 세 질문을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. “투명성을 높이는가?”, “정확도를 높이는가?”, “권한을 분산시키는가?”
- 단계별 조치: 효과적인 조치는 과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. 따라서, 결과 보다는 각 실행 단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. 특히, 실현 노력의 단계에서는 방향성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, 이러한 통찰력이 있을 때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HBR 원문

[보고서]

美증시를 보는 엇갈린 시선...JP모건 "거품"vs골드만 "랠리 정당"

**JP모건 "자산 가격,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상승해 거품 조건 충족"
골드만 "빅테크 높은 가치평가, 펀더멘털이 뒷받침"**

최근 미국 주식시장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거품 논쟁이 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500 지수는 올해 들어 증가 기준으로 15차례나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.

이에 대해 JP모건체이스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시장전략가는 미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 랠리와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 돌파는 거품이라고 지적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